고종 36년(1899) 남관왕묘의 중건과 건축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 of
Nam-kwan-wang-myo and it's Reconstruction

권 준 형*

Kwon, Joon-Hyung

(재단법인 역사건축기술연구소 연구원)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architectural characteristic of Nam-kwan-wang-myo as known as Nam-myo, Especially focusing on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it's reconstruction in 1899. Nam-kwan-wang-myo is a shrine for Kwan-woo who was warlord in ancient china. Belief of Kwan-Woo was introduced to Korea in Japanese invasion of 1592 and the shrine was built in 1598.

Belief of Kwan-Woo diffused for the late Joseon. during the reign of Gojong, many people have faith in Kwan-Woo including the king. There was four Kwan-wang-myo around the Hanyang at that time. In 1899 a fire of unknown cause broke out at Nam-kwan-wang-myo, so the main buildings burned down. The king instructed reconstruction of the shrine even though there was in financial difficulties, it had done in the midst of a national crisis. The buildings almost restored as before.

The buildings in the shrine has strong characteristics of Chinese architecture because it made by people of the Ming dynasty. Two side-by-side roofs, accumulated brick exterior are important architectural feature, but also all the buildings in the mail hall area Surrounded by the closed-connected fence is hard to find examples in Korea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Nam-kwan-wang-myo just had maintained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including layout of buildings, shape of the each building until it's reconstruction(1899).

주제어 : 남관왕묘, 남묘, 관왕묘, 중건, 조선

Keywords: Nam-kwan-wang-myo, Nam-myo, Kwan-wang-myo, Reconstruction, Joseon Dynasty

1. 머리말

관왕묘는 『삼국지연의』의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다. ‘관우 신앙’은 임진왜란 당시 명군에 의해 조선에 유입되어 국가제례와 민간신앙으로 점차 확산되었다.

남관왕묘는 선조31년(1598)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장수 진인이 남대문 밖 자신의 거처에 관우의 소상(塑像)을 설치하여 관왕묘로 이용하면서 비롯되었다. 광해군4년(1612)부터 관왕묘 제례가 소사(小祀)로 편입되어 국가에서 주기적으로 제례를 올리게 되었으며, 숙종대 이후 관왕묘에 국왕이 친림하면서 동관왕묘와 함께 국가의 중요한 사당으로 자리잡게 된다. 고종36년(1899) 화재로 주요 전각이 소실되었으나 곧바로 중건하여 명맥을 이어

오다가, 1907년 제례가 동관왕묘에 합사되면서 역할이 축소되었다. 한국전쟁시 전소되어 1957년에 다시 지었고, 1978년 사당동으로 이전하여 현재 일부 건물이 남아 있지만 원형과는 거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관왕묘의 연혁과 건축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1899년 중건(重建) 전후의 건축 변화를 비교하였다. 문헌자료는 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해 수집하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개인 문집, 신문자료 등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2. 고종 연간 남관왕묘의 중건

2-1. 관우 신앙의 확산

관우 신앙은 숙종대 이전까지는 위상이 높지 못하였

* Corresponding Author : psychoward@hanmail.net

다. 그러나 숙종이 직접 친림하고 어필로 시를 지어 동관왕묘와 남관왕묘에 각각 걸도록 하는 등¹⁾ 의도적으로 힘을 실어주면서 중요한 국가제례로 위상이 격상되었다.²⁾ 영조대에는 국왕이 친히 ‘顯靈昭德王廟’라는 글씨를 써서 동묘와 남묘에 걸도록 하였고³⁾, 정조대에 들어서는 선대 임금의 어제·어필비를 양 묘에 건립하였다.⁴⁾ 이후에도 국왕의 관왕묘 친림은 계속되었고, 관우신앙은 민간에 점점 더 퍼져나가 고종대에 이르면 민간신앙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된다.⁵⁾

고종은 즉위 이후 동관왕묘와 남관왕묘에 자주 친림하였다. 관왕묘에 대한 고종의 관심은 새로운 관왕묘의 건립으로 나타났다. 건립 원인과 과정에 대한 사료가 남아 있지 않아 일의 전모는 파악할 수 없으나 관왕묘의 신축에 고종의 의지가 반영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1883년 9월에는 북관왕묘가 새로 준공되어 제식과 절차를 동관왕묘 및 남관왕묘의 규례와 같이 하도록 하였다.⁶⁾ 북관왕묘는 옛 흥덕사 터에 지어졌는데, 1913년의 지적원도로 볼 때 남관왕묘보다 2배 이상 큰 규모의 필지 위에 조성되었다. 고종은 북관왕묘 건립 이후 여러 차례 친림하는 등 북관왕묘를 선호하여 동관왕묘와 남관왕묘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다.

1903년에는 서관왕묘로 통칭되는 숭의묘가 준공되었다.⁷⁾ 숭의묘는 남관왕묘보다 규모가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남관왕묘보다 못하지 않다는 기록이 있고⁸⁾ 지적원도(1913)상 남관왕묘보다 2배 정도 큰 규모의 필지에 자리

잡고 있었다. 1907년 동묘에 합사되어 운영된 시기가 길진 않았지만 관우와 함께 유비·장비의 화상을 봉안하여 관왕묘로서 기능하였다.

서관왕묘의 건립으로 수도 한성의 관왕묘는 동서남북 사방에 총 4개소를 갖추게 되었다. 지방에도 기존의 남원, 안동, 성주, 완도 외에 평양(1893), 개성(1897), 전주(1897) 세 곳에 공식 관왕묘가 새로 조성되었다.

이렇듯 고종연간에는 왕실에서 새로운 관왕묘를 건립하고 국왕이 친림하여 국가의 중요 사당으로서 위상이 높아졌고, 민간에는 관우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화재로 주요 전각이 불탄 남관왕묘는 왕명에 의해 즉시 중건된다.

2-2. 남관왕묘의 중건

1899년 2월 14일 申시(오후3~5시) 경 정전 반자 위에서 불이 나 남쪽 처마로 나가 남관왕묘의 묘우가 타고, 좌우 어필과 비각, 익각이 모두 탔다.⁹⁾ 소상과 소본소상, 북감실과 좌우벽 어진, 보경대사의 소상은 화재를 피할 수 있었으나, 4명의 장수 소상은 꺼내지 못하였다. 실화의 원인으로는 史書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당시 신문기사에 청인(淸人)이 기도하다가 불을 내었다는 내용이 있으나 진위는 파악되지 않는다.¹⁰⁾

남관왕묘 중건공사는 1899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래 2만원의 공사비가 예정되었으나 비석조성비로 1만원이 더 지출되었고, 이마저도 부족하여

Tab.1 Comparison with 4 Kwan-wang-myo near by Hanyang[cadastral map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地籍原圖)]

	Nam-Kwan-wang-myo	Dong-Kwan-wang-myo	Book-Kwan-wang-myo	Soong-eui-myo (Seo-Kwan-wang-myo)
Foundation	1598.4.	1601.8.	1883.9.25.(completion)	1903.11.27.(completion)
Location	京城府 西部 吉野町1丁目 68	京城府 東部 崇仁洞 238	京城府 東部 崇仁洞 2(興德寺地)	京城府 西部 天然洞 98
Area	1,263 坪	2,823 坪	2,716 坪	2,595 坪
Cadastral maps in 1913 (地籍原圖)

1) 『숙종실록』 권24, 18년(1692 임신) 9월 15일(신유) 1번째 기사

2) 심승구, 『조선후기 무묘의 창건과 향사의 정치적 의미-관왕묘를 중심으로』, 『조선후기의 정치와 제도』, 집문당, 2003

3) 『영조실록』 권64, 22년(1746 병인) 11년) 8월 22일(을유) 1번째 기사

4) 『정조실록』 권20, 9년(1785 을사) 11월 15일(신유) 2번째 기사

5) 종로구청, 『동관왕묘 종합정비계획 2011』, 2011, 80쪽

6) 『고종실록』 권20, 20년(1883 계미) 9월 25일(갑인) 2번째 기사

7) 『고종실록』 권43, 40년(1903 계묘) 11월 27일(양력) 3번째 기사

8) 『고종실록』 권44, 41년(1904 갑진) 4월 27일(양력) 1번째 기사

9) 『고종실록』 권39, 36년 기해(1899) 2월 14일 1번째 기사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이 아뢰기를, “방금 남관왕묘(南關王廟)의 수직관(守直官) 김진태(金鎭泰)의 보고를 받아보니, ‘오늘 신시(申時) 경에 난데없는 불이 갑자기 본 왕묘(王廟)의 정전(正殿) 반자(斑子) 위에서 일어나 남쪽 처마를 뚫고 나왔는데 사당은 전부 타고 좌우 친필 비각(左右親筆碑閣)에 불이 번졌고 익각(翼閣)도 불타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소상(塑像), 소본소상(小本塑像), 북감실(北倉室)에 있는 어진(御眞), 좌우벽에 걸린 어진(御眞)

19351원 40전이 추가 지출되었다. 신문을 통해 공사비 모금을 행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당시 사람들에게 남관왕묘 중건이 중요한 의미였음을 알 수 있다.¹¹⁾ 2월 29일에 입초, 3월 30일에 입주, 3월 14일에 상량하였다.¹²⁾

Tab.2 Record on the reconstruction in 1899

Year	Date	Contents	Source
1899	2/14	- Fire broke out. main buildings burned down - Gojong instruct reconstruction order to Youngseonsa	『Gojong-silrok』 vol.39
	3/14	- Instruct to secure funding for reconstruction(20,000won) from reserve fund	
	4/ 4	- Reconstruction in progress	
	4/ 8	- Instruct to secure funding for Nam-kwan-wang-myo Stele(10,000 won) from reserve fund	
	5/12	- Instruct to prepare additional funds for reconstruction(19,351 won 40jeon) from reserve fund	
	5/25	- Completion of "Myo-woo"	
	5/28	- Nam-kwan-wang-myo Bongsim and return of the clay figure	
	10/18	- Instruct to perform Stele construction next spring	
1900	6/30	- Instruct to secure funding for changing the stele(1,236 won) from reserve fund	『Gojong-silrok』 vol.40

확인한 사료에서는 중건 전후의 건축물 변화에 관한 내용이 없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국왕이 즉각 중건을 명하였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부역에 임하거나¹³⁾ 모금운동을 벌여가며 깊은 관심을 보였던 남묘의 중건 공사를 소홀히 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더구나 전각의 제도가 이전에 비해 더욱 높고 크다는 기록¹⁴⁾

은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이근수(李根秀)의 집에 임시로 모셔놓았습니다. 보정 대사(普淨大師)의 소장(塑像)도 모셔 내왔는데 네 명의 장수 소상은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에 끝내 꺼내올 겨를이 없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10) 『독립신문』 1899년 2월 23일 4면 3단 기사 '여향풍설' 여향 풍설) 금번에 남관왕묘 화지 난것은 었던 청인이 괴도 하면서 조희로 만든 돈이라는것을 불사르다가 실화된 연고이라는 즉 남묘 중건 역비 몇 萬원은 그 청인의게 물려 내는것이 못당 한다고들 혼다더라

11) 『황성신문』 1899년 2월 23일 4면 2단 기사 '南關王廟를 重建하니' 『독립신문』 1899년 3월 15일 4면 3단 기사 '남묘원조'

12) 『독립신문』 1899년 4월 11일 3면 2단 기사 '중건턱일'

13) 『독립신문』 1899년 2월 20일 4면 3단 기사 '즈원부역', '족족유여'

14) 『승정원일기』 고종 36년 기해(1899, 광무3) 4월 19일(병신, 양력 5월 28일)

상이 이르기를, "정위(正位)의 소장(塑像)과 여러 장위(將位)는 모두 전과 같은가?" 하니, 주석면이 아뢰기를, "전과 똑같습니다."하고, 이어 아뢰기를, "전각(殿閣)의 제도는 이번이 저번에 비하여 더욱 높

도 있어 적어도 기존의 규모는 유지되는 수준으로 복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중건 전후 남관왕묘의 건축적 계승

3-1. 초창 남관왕묘의 건축 특성

선조31년(1598) 진인이 처음 세운 사당은 그의 거처를 이용하였으므로 소박하였는데, 이를 고쳐 지으면서 목수나 이장(泥匠) 등을 조선 조정에 요구하여 도감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에 관한 기사에는 초창 당시 남관왕묘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짧은 단서가 포함되어 있다.¹⁵⁾

(명장 양호 曰) 묘전(廟殿)이 너무 낮고 좁으니 전각을 새로 짓고 좌우에 장묘(長廟)를 세울 것이며, 앞 뚝에는 중문(重門)을 세워 영원히 존속되도록 해야지 이렇게 초초(草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廟殿甚爲卑隘, 當改構新殿, 左右設長(廟) [廊], 前庭立重門, 以爲永遠之圖, 不可如是草草。

이로 미루어볼 때, 기존에 있던 정전을 고쳐 새로 지었으며 좌우의 긴 건물과 중문(重門)을 신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기와를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다.¹⁶⁾

최초의 모습은 정전이 낮고 좁았다는 것과 좌우로 긴 건물, 중문이 없었다는 사실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처음 사당으로 사용한 진인과 개축을 제안한 양호가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정전과 좌우 익각, 중문으로 이루어진 전각 배치와 건축 구조 등이 동관왕묘에 비해 좀 더 중국식으로 지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동관왕묘 조성이 명의 요구¹⁷⁾에 의해 시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조선 인 지관의 의견에 의해 터와 좌향을 잡았고¹⁸⁾, 조선 백성을 동원하여 지었다는 점¹⁹⁾에서 남관왕묘는 동관왕묘와
고 크고 넓어서 장대하고 화려함이 지극합니다." 하였다.

15) 『선조실록』 권99, 31년(1598 무술) 4월 25일 기사

16) 『동국여지비고』 제1권, 京都

남관왕묘(南關王廟) 송례문 밖 도저동(桃格洞) 산기슭에 있다. 선조 31년(1598)에 명 나라 장수 진인(陳寅)이 창건하였는데, 정전은 푸른 기와로 덮였다. 관왕(關王)을 향사하는데, 동쪽 배위는 왕보(王甫)·조루(趙累)요, 서쪽 배위는 주창(周倉)·관평(關平)이다. ○임진년과 정유년의 난리에 신령이 나타나 싸움을 도운 이적이 있으므로 창건하였다. 흙을 빚어 형상을 만들고 또 한 작은 금상(金像)을 봉안하였는데 바로 중국에서 받들고 온 상(像)이라 한다. ○후 말하기를, 좌우쪽에 관평·주창의 소상을 모셨다고도 한다. 묘 앞에 두 기를 세웠는데, 하나는 협천대제(協天大帝)라 쓰고, 하나는 위진화하(威鎮華夏)라고 썼다. 영종이 친히 현령소덕왕묘(顯靈昭德王廟)라고 써서 현판을 달라고 명하고, 친히 묘기(廟記)를 지었다. ○명 나라 조정의 통판(通判) 도량성(陶良性)이 비기(碑記)를 지었으며, 허균(許筠)이 비문을 지었다.

17) 『선조실록』 권138, 34년(1601 신축) 6월 19일(을유) 2번째 기사

18) 『선조실록』 권115, 32년(1599 기해) 7월 14일(신유) 6번째 기사

19) 『선조실록』 권121, 33년(1600 경자) 1월 13일(무오) 4번째 기사

출발점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3-2. 중건 이전의 보수이력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남관왕묘의 수리기록은 주로 담장 공사에 관한 것이 많다. 정조대(『일성록』), 고종대(『승정원일기』)에 담장 수리에 관한 내용이 집중되어 있다.²⁰⁾ 그밖에 1899년 중건 이전까지 남관왕묘 보수 공사 기록은 그리 많지 않다. 담장공사를 제외하면 1612, 1691, 1739, 1777, 1787, 1814, 1871, 1874, 1894년에 보수공사가 있었는데, 건립 이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 행한 초창기의 보수(1612년)를 제외하면 30~50여년마다 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건물이 퇴락했거나 파손되었다는 대략의 기록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수리했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건물에 변화가 있을 정도로 큰 공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로 지붕에 물이 새는 부분을 보수하거나 무너진 부분을 복원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1899년 화재 이전까지 건립 초기의 모습을 유지한 채 부분적으로 보수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3-3. 중건 남관왕묘의 건축적 계승

그렇다면 1899년 중건 전·후 남관왕묘의 건축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중건 이전에 촬영된 사진은 전경사진 밖에 남아있지 않아 상세비교가 불가능하나 전체적인 모습은 확인 가능하다.

1884~1885년경 남산에서 내려다 본 전경사진<Fig.1>과 1891년경 남관왕묘의 남쪽에서 촬영된 전경사진<Fig.2>에 나타나는 남관왕묘의 모습은 그 이후에 촬영된 사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맞배지붕이 2개 이어져 있는 정전 지붕과 어필각 부분만 솟을지붕으로 되어 있는 서무의 모습, 맞배지붕의 내삼문과 외삼문, 내삼문 남쪽 건물의 정전지붕과 같은 지붕 모습 등 건물 배치와 형태가 거의 동일하다. 차이점은 정전 측면 판문 위에 설치되어 있는 차양으로 추정되는 시설물의 높이 정도이다.

또한 1876년에 간행된 『남묘도』(『해동성적지』)의 건물 표현과 중건 이후에 촬영된 사진의 건물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원경사진 뿐이기 때문에 각 건물의 세부모습은 확인할 수 없지만, 건물의 칸수, 지붕구조, 창호의 위치와 모습 등으로 볼 때 적어도 사당 규모나 건물의 외형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남관왕묘는 화재 이전과 거의 유사한 모습으로 중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Fig.1 Whole view of the Nam-kwan-wang-myo in 1884~1885(The University of Wisconsin Milwaukee Library)

Fig.2 Whole view of the Nam-kwan-wang-myo in 1891(『Scenery and customs on glass negative film 1891~1930』)

4. 고종연간 중건 남관왕묘의 건축 특성

4-1. 터와 좌향

남관왕묘가 위치했던 대지의 형태와 규모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지적도를 살필 필요가 있다. 남관왕묘가 위치했던 곳은 지적원도(1913년 제작)상 京城府 西部 吉野町1丁目 68번지에 해당된다. 지목이 社寺地로 등록되어 있어 남관왕묘 자리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유지이며 면적은 1,263평으로 2,823평인 동관왕묘에 비해 절반 정도의 필지 규모이다.

『해동성적지(海東聖蹟誌)』²¹⁾의 『남묘도』<Fig.5>에 의

20) 정조2년 3/13, 정조2년 윤6/5, 정조11년 7/16 (이상 『일성록』)
고종2년 9/29, 고종4년 8/28, 고종5년 7/7, 고종11년 9/27, 고종16년 4/10, 고종16년 9/7, 고종22년 5/3, 고종22년 8/26, 고종28년 8/17, 고종30년 2/29 (이상 『승정원일기』)

21) 『해동성적지』는 1876년(고종 13) 단국현성전(檀國顯聖殿)의 주관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관제신앙(關帝信仰)에 관련된 사항을 수집하여 정리 기술한 종교자료집이다. 이 책은 동관왕묘·남관왕묘를 비롯한 경향 각지 관왕묘의 창건 시말, 축문과 제문을 곁들인 제사의 규모와 절차, 관제신앙을 통하여 얻은 영험 사례를 자료 제시와 함께 기술하고, 관제신앙에 관련된 제가의 각종 시문을 분류별로 수록하고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설명 인용) 1876년 간행된 것으로

하면 남관왕묘는 사당으로 진입하는 입구가 중문과 정전을 잇는 중심축선상에 있지 않고, 좌측 하단에 위치한 대문으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배치는 지적원도 상의 경성부 서부 길야정1정목 68번지 필지 형태에서도 잘 드러난다. 필지는 동서로 긴 장방형에 남동쪽 모서리 부분이 남쪽으로 길게 내민 형태로서 남쪽에서 진입한 후 서쪽으로 ‘ㄱ’자로 꺾어 사당 중심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형태이다. 『경성시가전도』(1927)의 필지 형태와 각 동의 배치 역시 이를 뒷받침해 준다.

Fig.3 Nam-Kwan-wang-myo area in cadastral maps(1913) and putative location of security office

Fig.4 Nam-Kwan-wang-myo's layout of buildings on the Keijo street map (『京城市街圖』, 1927)

사당의 전체 윤곽은 동서로 긴 장방형으로 필지 남쪽으로 길게 내민 부분은 사당으로 진입하기 위한 공간인 것으로 생각된다. 1891년경에 촬영된 사진<Fig.2>을 보면 남쪽 담장 밑에 위치한 집들의 지붕이 담장보다 상당히 낮게 위치하고 있어 진입로가 오르막길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외삼문과 내삼문이 ‘ㄱ’자로 꺾여 진입되는 구조는 북관왕묘에서도 나타나며, 정전의 좌향이 동향인 점은 남관왕묘 뿐 아니라 북·서관왕묘가 모두 그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²²⁾

한편 남관왕묘는 1598년 건립 후 수직소를 설치하여 훈원원의 관원이 관리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는데²³⁾, 수직소의 위치로 추정되는 필지가 있어 주목된다. 남관왕묘 입구 건너편에 위치한 경성부 서부 길야정1정목 126번지는 23평의 垆地로 국유지로서 수직소가 위치하기에 적절하다. 동관왕묘의 경우 입구로 들어가는 길 맞은편에 위치한 필지가 조선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수직소 시설의 위치로 추정되고 있다²⁴⁾. 사당 규모가 작기 때문인지 동관왕묘 수직소(필지 115평)에 비해 소규모였던

1899년 중건 이전의 배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중건 이후의 사진이나 도면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중건 남관왕묘의 배치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22) <Tab.1>의 지적원도에 나타난 대지형태로 추정하였다.

23) 『선조실록』 권130 33년(1600 경자) 10월 19일(기축) 5번째 기사

24) 종로구청, 『동관왕묘 종합정비계획 2011』, 2011, 163쪽

것으로 보인다.

4-2. 배치와 전각 구성

『해동성적지』의 『남묘도』에 의하면 남관왕묘는 남쪽 담장 오른쪽 끝에 외삼문이 위치하여 남쪽에서부터 사당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외삼문은 5칸이며 가운데 3칸이 솟을대문이다. 솟을대문 좌우 2칸은 방으로 추정되며 화방벽 상부에 창호가 확인된다. 동관왕묘와 달리 협문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Fig.5 『Nam-Myo-Do』 (『Haedongseongjeokji(海東聖蹟誌)』, 1876)

외삼문으로 진입하면 오른쪽에 3칸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용도는 파악되지 않으며 가운데 어칸에만 창호의 표현이 되어 있지 않다. 북동쪽 담장 아래에는 국왕 친림시 막차(幕次)를 설치하고 머무는 어막대(御幕臺)²⁵⁾가 위치한다. 2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단은 세벌대, 두 번째 단은 두벌대로 표현되어 있다. 두 번째 단 북쪽에는 바위가 표시되어 있다. 계단은 3개소이다. 북쪽, 동쪽 담장과 어막대 사이에는 담장을 따라 길게 놓인 단이 1단 확인된다. 동쪽 담장에는 이보다 1단 낮은 또 하나의 단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구조물은 화계로 추정된다. 화계 남쪽 끝에는 비석이 위치하는데, 같은 형태의 비석이 『동묘도』에서도 확인된다.

외삼문과 어막대 중간지점의 서쪽에는 정전 권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정면3칸의 내삼문이 위치하고 있다. 내삼문 좌우로는 2동의 건물이 위치한다. 좌측 건물은 별도의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개별적으로 조성된 대문을 통하여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지붕 정면에 합각면이 보이는 것이 정전의 지붕 형태와 유사하다. 내삼문 우측 건물은 모임지붕으로 그려져 있는데, 벽면 상부를 경사지게 그린

25) 어막대란 제례를 위해 행차한 임금이 막차를 설치하고 머무는 대(臺)로서 동묘에서도 확인되었다.(『동관왕묘 종합정비계획』 152쪽)

표현이 특이하다. 두 건물의 용도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정전권역은 정전과 좌우 익랑, 내삼문이 담장으로 연결되어 외부로부터 폐쇄된 공간을 형성한다. 정전은 지붕이 이중으로 그려져 있으며 정면에 합각면이 보인다. 정면3칸 건물로 측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창호 하부에는 머름이 표현되어 있다. 정전 앞쪽에는 내삼문과 익랑으로 향하는 ‘十’자 형의 참도가 나 있다. 정전과 동·서무 사이에는 협문이 각 1개소씩 존재한다. 동·서무는 5칸으로 정전과 내삼문과 연결되어 있다. 참도와 연결된 칸만 솟을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이 어필비각으로 추정된다. 정전 뒤쪽 좌우로 정면3칸 건물이 2동 보이는데, 둘 모두 어칸에 창호 표현이 되어 있지 않다. 전사청일 가능성이 있으나 확실치는 않다.

4-3. 개별 전각의 건축특성

(1) 정전

정전권역은 평면도가 남아 있어 상세한 파악이 가능하다. 동관왕묘와 마찬가지로 정전과 배위청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정전은 정면3칸 측면4칸이고, 배위청은 정면3칸 측면1칸이다. 협칸과 어칸의 비는 약 1:1.3이다. 정전과 배위청 사이에 형성되는 회랑은 건물 우측면에서 좌측면까지 연결되는 통로로 사용된다. 배위청에서 정전으로 진입하는 부분에는 3칸 모두 창호가 설치되어 있다.

Fig.6 Floor plan of the Main hall area(National Museum of Korea)

기둥은 원주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둥마다 주련이 붙어 있다. 좌우측면과 후면(어칸 제외)은 모두 전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전벽은 좌우 협문 담장까지 일체형으로 서로 연결된다. 배위청 앞으로는 장대석 기단이 두벌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관왕묘 정전 앞에 넓게 구성되어 있는 월대는 남관왕묘에서 보이지 않는다.

정면을 살펴보면, 건물 하부에 2단의 기단이 있는데 첫 번째 단 앞으로는 약간 짧은 길이의 1단이 더 붙어 있어 계단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원형 초석이 놓였고,

초석과 초석 사이는 장대석 고막이들이 쓰였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상·하인방과 벽선으로 구성된 프레임 안에 널문 4짝이 달려 있다. 동관왕묘와 유사한 살문으로 되어 있으나 형태에 약간 차이가 있다. 상인방 위로는 광창이 있다. 기둥 옆의 전벽은 기단 위 3단을 화강석으로 축조하고 그 위부터 벽돌로 벽을 조성하였다. 상인방 높이까지 벽돌을 쌓았으며 그 위로는 기와를 이용하여 장식한 역사다리꼴의 주두가 있다. 현판의 글자는 사진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동관왕묘와 같이 ‘顯靈昭德義烈武安關帝廟’의 11글자가 적혀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남관왕묘 중수 후 고종이 내린 명호인 ‘顯靈昭德義烈武安關帝’²⁶⁾와 동일하다.

공포형식은 이익공이며 창방 위로 4개의 복화반형 화반이 놓였다. 지붕 하부는 맞배지붕과 같은 구조이나 상부는 합각면이 보이는 합각지붕으로 지내철과 방환을 사용한 모습이다. 동관왕묘 정전 합각면과 유사하다. 겹처마이며 용마루와 내림마루 위에는 양성바름이 되어 있다. 합각면 내림마루 위의 취두와 측면 내림마루 위의 잡상 5개가 확인된다.

Fig.7 Front of the Main hall(『Joseongojeokdobo(朝鮮古蹟圖譜)』 vol.11)

Fig.8 Left side of the Main hall(『Joseongojeokdobo(朝鮮古蹟圖譜)』 vol.11)

26) 『국역 매천야록(梅泉野錄)』 제3권 光武 5年 辛丑(1901년)

측면의 모습은 사진으로 확인 가능하다.²⁷⁾ 측벽 하부는 장대석으로 3단을 축조하고 그 위에 벽돌을 쌓았다. 정면 조적부의 주두와 연결되어 길게 내어쌓기한 부분 위로 정사각형 형태의 장식부재와 막새기와를 길게 이어 쌓았다. 측면의 지붕면은 맞배지붕 2개가 맞붙은 형태인데, 정전의 지붕이 배위청 지붕보다 좀 더 크고 높게 되어 있다. 정전과 배위청 사이 좌우측벽에는 문이 있다. 사진상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화강석 아치형태로 출입구를 만들고 안에 두 짝의 나무판문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문 상부에는 나무 널판으로 보이는 차양이 설치되어 있는데 형태로 볼 때 임시가설물로 생각된다. 후면은 사진이 남아 있지 않아 추정만 가능하다. 도면상 어칸을 제외하고는 전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02년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의 조사에 따르면 정전과 배위청 내부 구조는 동관왕묘와 유사하여 배위청 부분은 연등천장이고, 정전 부분은 쌍학과 운문이 채화된 우물천장이었다. 좌우 측벽에 따라 정(旌), 휘선(麾扇), 개(蓋) 등이 장식되어 있었다. 전벽으로 둘러싸인 좌우측면의 내부 벽면은 회벽으로 보인다. 정전 바닥에는 널이 깔려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배위청은 평사량으로 동관왕묘 배위청과 동일한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곳곳에 도금한 금구(金具)를 장식하였는데 수법이 섬세하였다고 한다.²⁸⁾

Fig.9 Framed structure of the ceiling of the Main hall (『Joseongojeok dobo (National Museum of Korea) (朝鮮古蹟圖譜)』 vol.11)

흙으로 빚은 관우의 소상은 어칸 기둥 사이로 조성된 감실에 위치하였다.²⁹⁾ 이 소상은 1899년 화재 당시 다른 곳으로 옮겨 화를 면하였다가 환안한 것으로 선조33년(1600)에 고쳐 만든 소상이다.³⁰⁾ 소상이 모셔진 칸 좌우

27) 남아 있는 것이 좌측면 사진 뿐이기 때문에 우측면은 확인할 수 없으나 좌측면과 거의 동일할 것으로 추정된다.

28) 關野貞, 『한국의 건축과 예술』-覆刻 韓國建築調査報告- 333쪽, 1990

29) 감실 입구는 도면에 어칸 좌우 기둥보다 앞쪽에 위치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진에서는 같은 선상에 위치한 것으로 보여 상충된다. 어느 것이 본래의 형태인지는 알 수 없다.

30) 『선조실록』 권121, 33년(1600) 1월 29일(갑술) 1번째 기사

로는 만살청판분합이 한 짝씩 있다. 기둥에는 주근도지의 모습이 보이며 상부에 ‘萬古忠心’, ‘千秋義氣’라는 글귀가 걸려 있다.³¹⁾ 정전 신좌 앞쪽으로는 휘장이 쳐져 있는데, 대단(大緞)으로 만들어져 있었다고 한다.³²⁾ 감실 앞에는 단상과 향로 등이 위치하였다.

(2) 동·서무(어필각)

정전 좌우로는 동·서무³³⁾가 위치하였으며 정전과의 사이에 협문이 설치되었다. 동·서무의 정면은 도면상 8칸으로 어필각 2칸과 익각 6칸으로 구성되어 있다.³⁴⁾

어필각은 정전좌우에 1곳씩 있으며 익각 서쪽 끝에 위치한다. 어필비가 위치했던 곳으로 정면2칸 측면2칸의 규모이다. 어필비는 동·서무에 각 1기씩으로 한 기에는 전면에 숙종의 어제를 모각(摹刻)하고 후면에 영조의 어제를 모각하며, 다른 한 기에는 전면에 장종의 예제를 쓰고 후면에 정조가 직접 쓴 글을 모각하였다고 한다.³⁵⁾ 창건 당시부터 이러한 형태는 아니었고 정조연간 비석을 세우면서 비석이 세워질 곳의 월랑 1칸을 높이와 너비를 늘려 고쳐 세우도록 하여 개축된 것 같다.³⁶⁾ 방형초석 위에 각주가 세워져 있고, 정면 2칸에 모두 디딤돌이 위치하고 있다. 정면 창호는 동관왕묘 동·서무와 유사한 살창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면 하부는 허튼층쌓기로 화방벽을 축조하고 그 위로 벽돌로 벽을 쌓았다. 벽돌 벽 위로 창호가 있었으나 형태는 확인되지 않는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어필각 2칸만 솟을지붕으로 되어 있다. 측면에는 하부가 둥근 풍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좌우 익각은 정면 6칸 측면 1칸 반으로 주칸은 어필각의 0.6배 정도이다. 서쪽에서부터 다섯 칸은 통칸이며, 가

Fig.11 The clay figure of the Kwan-Woo in the Main hall (National Museum of Korea)

31) 보이지 않는 부분은 동관왕묘 주련을 참조하여 추정하였다.

32) 『승정원일기』 고종29년(1892) 9월 10일(을미)

33) 사료에는 주로 익각으로 지칭되어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찾지 못하였다. 세키노의 남관왕묘 조사보고서에서 동무와 서무로 지칭한 점과 동관왕묘의 사례로 볼 때 동무와 서무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서무로 지칭하였다.

34) 『남묘도』에는 이 부분이 5칸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주칸이 어필각의 0.6배 밖에 되지 않는 익각의 2칸을 1칸으로 계산하면 총 5칸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35) 『일성록』 정조9년 을사(1785) 9월 25일(신미)

“두 묘정에 각각 2개의 비석을 세우되, 1개의 비석에는 전면에 숙조의 어제를 모각(摹刻)하고 후면에 선조의 어제를 모각하며, 또 1개의 비석에는 전면에 경도궁의 예제를 쓰고 후면에는 이어서 지은 비문을 직접 쓸 것이니, 그리 알라.”

36) 『일성록』 정조9년(1785) 10월 23일(기해)

장 동쪽에 있는 한 칸은 벽으로 구획되었다. 방형초석 위에 각주를 세웠으며, 측면과 후면이 모두 전벽으로 마감되었다. 전벽은 어필각에서부터 중문까지 연결되어 있다. 바닥에는 전돌이 깔려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처마길이가 상당히 짧다.

사료에는 남관왕묘 벽에 그림이 걸려 있었다고 하였다.³⁷⁾ 세키노 타다시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익각 내부 벽에는 관우의 사적(事績)을 그린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남묘의 그림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으나, 동묘 동·서무의 경우 5칸 중 좌우 1칸을 별실로 하고 중앙 3칸에 벽화 칸을 두었다고 하였다. 벽화 칸에는 뒷벽과 사이벽을 붙임벽으로 하여 여기에 관우의 사적을 그렸다.³⁸⁾

Fig.12 Floor plan of Dongmoo in Dong-kwan-wang-myo Sketched by Sekino Tadashi(關野貞) (『Korean Architecture and Art』)

남관왕묘 정전권역 평면도에 따르면 동·서무도 역시 이와 같은 형태로 익각 가장 끝 칸이 벽으로 구획되어 어필각과 더불어 별실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볼 때 남관왕묘 동·서무는 8칸 중 2칸이 어필비각, 5칸이 벽화칸, 1칸이 용도미상의 별실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Fig.13 Presumed each room's use in Dong-moo

창호는 동관왕묘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확실치는 않다. 후면은 화방벽 위로 벽돌로 쌓아 어필각과 같으나 1891년의 사진으로 볼 때, 상부에는 창호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十’자 참도 앞쪽 좌우에는 각 1기씩 석조물이 위치하고 있는데, 북관왕묘의 ‘등룡대석’ 사진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이중 우측의 것은 이미 상부가 사라진 상태였다.

(3) 내삼문

정전 권역으로 진입하는 남묘의 정문으로서 정면4칸

측면3칸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정면에서부터 두 번째 어칸 기둥 자리에는 기둥이 없다. 방형초석 위에 원주를 세웠다. 측면 전벽 하부는 화방벽을 허튼층쌓기로 조성하였고, 그 위로 벽돌을 쌓아 합각면까지 벽돌로 마감하였다. 용마루와 내림마루에 양성바름이 되어 있고, 취두와 잡상이 있었다. 창호는 사진상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판벽과 판문, 살창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칸에는 휘장이 쳐져 있었다.

Fig.14 Inner main gate of Nam-kwan-wang-myo (『Korean History of Keijo』, 1934)

Fig.15 The inside of Inner main gate (National Museum of Korea)

(4) 외삼문

『남묘도』에는 총 5칸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가운데 3칸만 솟을대문이다. 솟을대문 좌우의 1칸에는 화방벽이 있고 상부에 창호가 나 있다. 동관왕묘와 달리 협문은 존재하지 않았다. 전경 사진으로 남아 있는 것이 전부여서 자세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어막대

어막대는 임금 방문시 막차를 설치하는 곳으로 중문 동북쪽에 위치한다. 남북축인 동관왕묘의 경우 중문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중문을 기준으로 한 위치는 남관왕묘와 동관왕묘가 서로 같다. 동관왕묘는 정전영역의 참도가 어막대 앞까지 연결되어 있었으나 남관왕묘에서는 어막대 앞의 참도가 확인되지 않는다.

1900년대 초반의 사진을 통해 어막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북쪽으로 갈수록 지대가 높아져 어막대 뒤쪽의 북쪽 담장은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단은 2단으로 되어 있으며 2번째 단 위에는 『해동성적지』에 그려져 있는 바위가 확인된다<Fig.16>.

Fig.16 Eomakdae and a building in 1904 (Cornell University Library)

Fig.17 Inner main gate and rightside building (National Museum of Korea)

37) 『열하일기』 양엽기의 관제묘 조에는 북경 안팎의 사찰·묘 등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 이중 “남관왕묘 벽의 그림이 북경 정양문 오른쪽에 위치한 백마관제묘의 그림을 대체로 모방한 것(我國南關廟壁上所揭。蓋摹此筆也。)”이라는 기록이 있다.

38) 關野貞, 앞의 책, 331쪽

1904년에 촬영된 사진<Fig.16>에는 담장 아래 바위 아랫부분이 맨땅의 경사지로 되어 있으며, 경사지 왼편에는 장대석으로 화계가 조성되어 있다. 반면 보다 후대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Fig.17>에는 화계가 없어지고 단이 평평하게 정리되어 있다. 관왕묘 제례가 동묘로 합사된 1907년 이후 어막대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면서 형태와 용도가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묘의 경우 어막대 계단에 운각대우석(雲刻大隅石)이 사용된 것과 달리, 소맷돌로 조각된 짐승형태의 석물이 쓰였다.

Fig.18 The frontal stair of Eomakdae(National Museum of Korea)

(6) 내삼문 남쪽 건물

정전 영역과는 별도의 담장에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칸수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정면 3칸 이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남묘도』에는 지붕의 형태가 특이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1891년 경에 찍힌 남관왕묘 사진<Fig.2>는 이 건물의 지붕이 정전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측면에서 봤을 때 맞배지붕이 2개 이어진 형태가 확인되며, 그 뒤쪽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내림마루의 곡선으로 볼 때 정전과 동일한 구조로 추정된다. 건물의 명칭과 용도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7) 내삼문 북쪽 건물

중문 오른쪽에 위치한 건물은 정면1칸 측면1칸 규모로 추정된다. 사진상 측면이 전벽으로 마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형태로 보아 정면을 제외한 3면이 모두 전벽일 것으로 생각된다. 전면에는 4쪽의 판문이 확인되는데, 가운데 2쪽만 개폐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지붕은 모임지붕이며 양성바름이 되어 있다. 건물의 명칭과 용도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한편 건물 우측면에서부터 북쪽 담장까지 계단식 담장이 있으며 그 끝에는 협문이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Fig.16>. 『남묘도』에는 어막대 위 북쪽담장과 인접한 단이 서쪽 정전권역 중간 정도까지 연결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이 문을 통해 정전권역 북쪽에 위치한 건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8) 깃대

1904년에 촬영된 남관왕묘 정문 앞의 사진에서는 나무로 된 대를 확인할 수 있다<Fig.16>. 독소제(蠹所祭)를 행할 시 깃발이 걸렸던 깃대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시설

은 동관왕묘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사진 상으로는 깃대를 고정했던 지주가 확인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남관왕묘에는 묘 앞에 깃발 2개가 세워져 있었으며, 각각 ‘협천대제(協天大帝)’와 ‘위진화하(威鎮華夏)’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고 한다.³⁹⁾ 『서애집』에 ‘명나라 서울에 있는 묘 앞에는 두개의 긴 장대를 세우고 두 개의 깃발을 달았는데, 한 곳에는 “협천대제(協天大帝)”라 써어 있고 한 곳에는 “위진화하(威振華夷)”라고 써어 있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의 관왕묘와 거의 유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료에는 깃발이 2개 걸려 있었다고 하나 사진에서는 깃대가 1개 밖에 확인되지 않는다.

(9) 기타 건물

『남묘도』에 표시된 정전 서남쪽 3칸 건물은 『조선고적도보』(1931)에 수록된 정전 측면 사진<Fig.8>의 왼쪽 하단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쪽마루가 있고 분합문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지붕에는 양성바름이 없다. 1890년대 사진 상으로는 정전 뒤쪽으로 맞배지붕만 확인된다. 전체적인 형태와 용도 등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한편 『남묘도』의 정전 오른편 건물과 어막대 남쪽의 비석은 사진상 확인되지 않는다.

5. 맺음말

1899년 중건 이전까지 유지보수 이외의 큰 수리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남관왕묘는 좌향, 건물 배치, 정전과 배위청의 지붕연결, 전벽 사용 등 건축의 기본적인 틀이 초창 당시와 다르지 않았고, 정조연간 어필비각 건립을 위한 익각 확장 외에는 크게 손을 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건시 불에 탄 정전과 어필비각, 익각 등 주요 건물을 재건하였으나 중건 전후의 사진으로 볼 때 거의 종전과 같은 형태로 복원되었으므로 초창 당시의 건축특성을 상당 부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남관왕묘의 영건은 명인(明人)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동관왕묘가 공간 조성 방식에 있어서는 중국의 제도를 수용했지만 영건 수법은 조선 건축술에 의해 지어진 것⁴⁰⁾과 마찬가지로 남관왕묘 역시 조선의 장인이 영건과 이후의 보수에 참여하였으므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선의 기술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남관왕묘는 처음부터 중국인이 터와 좌향을 잡고 주도적으로 건축하였기 때문에 조선조정이 중심이 되어 건립했던 동관왕묘보다 중국건축의 영향을 더 많이

39) 『동국여지비고』 제1권, 京都

40) 종로구청, 『동관왕묘 종합정비계획 2011』, 2011, 160쪽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건조물 수리시 변경될 수 있는 건축기법, 구조, 외장적인 측면보다 건물 배치에서 강하게 드러난다. 남관왕묘에서 나타나는 중국건축의 요소로는 두 동이 나란히 이어붙은 맞배지붕과 벽돌로 쌓은 외벽 등도 꼽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전 권역의 모든 건물이 하나의 담장으로 연결되어 폐쇄적인 공간을 형성하는 건물 배치가 한국의 단묘건축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인 만큼 특히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References

1. Seonjo-silrok(宣祖實錄)
2. Sukjong-silrok(肅宗實錄)
3. Youngjo-silrok(英祖實錄)
4. Jeongjo-silrok(正祖實錄)
5. Gojong-silrok(高宗實錄)
6. Seungjeongwonilgi(承政院日記)
7. Ilseongrok(日省錄)
8. Donggukyeojibigo(東國輿地備考)
9. Seoaiejip(西厓集)
10. Yeolha-Ilgi(熱河日記)
11. Haedongseongjeokji(海東聖蹟誌)
12. Tongnip-sinmun(獨立新聞)
13. Hwangseong-sinmun(皇城新聞)
14. Cadastral map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地籍原圖), 1913
15. Land Survey Register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土地調查簿), 1913
16. Joseongojeokdobo(朝鮮古蹟圖譜)
17. History of Keijo(京城府史), 1934
18. Sekino Tadashi(關野貞), 『Korean Architecture and Art -覆刻 韓國建築調查報告-』, 1990
19. Korean Museum of Photography, 『Scenery and customs on glass negative film 1891-1930』, 1998
20. Sum, Seunggu, 『The foundation the Moo-myoo in the late Joseon and Hyang-sa's political significance - mainly Kwan-wang-myoo』, 『Joseon's political and institutional』, Jipmoondang, 2003
21.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e Architecture of Dongmyoo』, 2004
22. Yoo, hyun, 『Propagation of worship for Gwanwang and King's political attitude during the reign of Gojong』, Dept. of History, the graduate school of Donga University, 2006
23. Heo Seung,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Dong-Myoo』, Dept. of Construction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of Ulsan University, 2006
24. Jongnogu office,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for Dong-Kwan-wang-myoo』, 2011

접수(2013. 6. 15)
수정(1차: 2013. 7. 24)
게재확정(2013. 7. 29)